

책머리

River & Culture

다시 '샛강 살리기' 운동을 합시다!



우효식 | 우리협회 부회장

1990년대에 어느 중앙 일간지에서 “샛강을 살리자”라는 운동을 한참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초점은 물 오염에 맞추어졌으며,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금년 말이면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은 끝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상인 대하천보다는 중소하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흥수피해의 90% 이상이 중소하천에서 나는 현실에서 대하천 사업은 치수 측면에서 투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하천오염은 중소하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물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중소하천 정화사업이 우선이라는 점은 틀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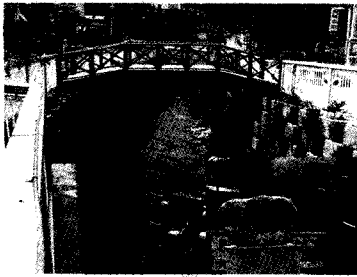
문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이미 반을 넘어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점이다. 설령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해도 이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붙잡고 ‘떼’를 쓴들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부는 중소하천에 투자할 시점이다.

도시에서 사는 독자들은 자주 느꼈을 것이지만 교외로 나가면 흔히 보이는 것이 불품없이 ‘방치’된 크고 작은 도랑, 개울, 하천이다. 물은 거의 없고, 색깔도 맑지 않고, 모래나 자갈 바닥에는 영양물질 과다로 퍼된 조류가 끼어 있고, 주변 사주에는 ‘잡풀’이 무성하고 제방이나 석축은 콘크리트 회색이 주류를 이룬다. 예전 정지용이 노래하던 ‘실개천, 김소월의 ‘반짝이는 금모래 빛’과 ‘개여울’은 이제 과거 기억으로 사라졌다.

물론 이 같이 우리의 중소하천이 오염되고, 변형되고, ‘방치’된 것은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짧은 시간에 높은 산업화율 이룬 결과이다. 하천이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하천과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초반에 ‘소하천정비법’이 만들어져 체계적인 소하천관리가 시작되었지만 이는 대부분 치수 위주의 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망가진’ 하천을 복원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오염된 중소하천에 대해 정화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지금의 투자 수준으로는 수많은 중소하천을 깨끗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소하천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 유역에 떨어진 빗물이 모여 소하천을 만들고 다시 중규모 하천을 만들어 종국적으로 4대강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동시에 중소하천은 도시 지역이건 농촌, 산지 지역이건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물’이다. 이 점에서 중소하천을 살려 깨끗한 물이 흐르고 모래, 자갈밭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실개천, 개여울, 금모래 밭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먹는 물을 원천적으로 깨끗이 하고 하천에서 사는 생물을 살리면서 지역주민의 정서와 문화와 위락 공간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해 군대 간 아들에게 면회 가기 위해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이라는 한적하고 외딴 마을에 간 적이 있다. 그때 면소재지를 흐르는 아주 작은 소하천이 깨끗하게 단장되어 지역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조금만 신경 써도 과거 방치된 마을 소하천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작은 탄성을 지른 적이 있다.



양구군 방산면 마을에 단장된 개울



홋카이도 어느 작은 도시에 복원된 개울

또 몇 년 전 일본 홋카이도 작은 도시의 소하천이 복원되어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산책로가 된 것을 보았다. 물론 국내에도 그런 정도의 소하천 환경정비 사례는 많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원된 개울이 우리처럼 정형화 되어 있지 않고 그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중소하천 복원사업을 보면, 이는 분명 1990년 말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 사업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거의 천편일률적이다. 하도를 '인위적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수변에 조경용 나무와 풀을 심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하천에 도입하는 도시화된 복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중소하천의 복원사업을 다양하고 내실 있게 해 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관계부처 기능에 맞추어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하천 복원사업도 전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홍수에도 강하고, 맑은 물이 흐르고, 수변이 살아있는 중소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치수, 수질, 생태, 위락 어느 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제 기능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통합적인 중소하천복원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실개천, 개울, 중소하천, 대하천을 만든다. 그에 따라 물과 토사는 물론 반갑지 않은 오염물, 나아가 수생 생물은 하천에 흐른다. 즉 하천에서는 모든 영향이 상하류 연속성이 있다. 따라서 하천 사업을 하는 경우 소하천부터 시작하여 중대하천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제 '포스트 4대강' 시대에 맞추어 중소하천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투자, 시민과 주민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천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하천협회의 능동적,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 번 지난 몇 년 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과감한 투자 의지를 기대한다.

2011. 4

한국하천협회 부회장 우효섭